

## 5분간의 인터뷰



### 전산초 선생님을 찾아서

항기 짙은 5월 하순,  
 기자는 본 협회 신임회장이시  
 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
 이신 전산초 선생님을 방문했다.  
 캠퍼스의 싱그러움 풀내음이  
 스며드는 110호실, 선생님의 품  
 위를 말해주는 듯 아름다운 그림  
 몇 폭이 정렬히 걸려 있고 화병  
 에는 싱싱한 카네이션이 한창 물  
 을 머금고 있었다.

「선생님 안녕하세요? 막 점심  
 을 끝내셨군요.」

「네, 어서 와요」

「오전 중에 온다는 것이 그만  
 선생님의 귀중한 휴식시간을 방  
 해하게 됐군요.」

엔지 어렵지만 느껴지는 통가  
 짐으로 열자리에 앉으면서 겨우  
 안정을 했다.

「선생님, 간호계에 계시면서  
 본 협회 신임회장이 되신 소감을  
 우선 한 말씀 해주셔야지요?」

「소감이라면, 7천여명의 전문  
 직 간호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이  
 끌어 나가 줄 것을 기대하고 선  
 출해 준 회원들을 생각할 때 막  
 중한 책임을 느낍니다. 또한 내  
 년에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 
 이제는 회관도 건립됐고 여타가  
 지 사업을 위한 기금도 어느정도

마련되어 기본적 토대는 잡혔으  
 니 7년간 회장직을 맡아 이런 기  
 반을 끌어주신 홍신영 전회장님  
 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」

다간하면서도 젊고 의욕적인  
 선생님의 인상에서 기자는 한결  
 가까워진 기분으로 몇달쯤 더 여  
 주어 봤다.

「이렇게 지도층에 계신 분 특히  
 여성에게는, 그분들이 하루를  
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게 다  
 려인데요, 선생님의 하루는 어떻  
 게 짜여지셨는지요?」

「평일엔, 7시 40분이면 학교에  
 나와 8시에 Chaple time 을 갖는  
 것으로 시작됩니다. 책보고 연구  
 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시간 여유  
 가 있을 땐 그림 그리는 것으로  
 취미를 삼지요.

일요일엔 대개 교회에 나가 교  
 회일 듣는 것으로 보람을 느낍니  
 다.」

「선생님이 이제까지 살아오시  
 면서 가지신 생활지침이 있다면  
 어떤 것입니까?」

「항상 모든 일에 성의를 가지  
 고 임해야 하겠고 신앙을 갖고  
 모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면 역  
 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 
 생각하고 살아갑니다.」

「선생님은 어떤 음식을 즐기십  
 니까?」

「미주에 있을 때 맛을 들여 놓  
 아서 그런지 양식을 좋아하는 편  
 입니다.」

「여성으로서의 솜씨에 대한 관심  
 은 어느 정도입니까?」

「물론 간호원이기 때문에 더욱  
 친절하고 단정할 표양미를 가져  
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」

「선생님의 자제분은 몇이나 되  
 세요?」

「4형제인데 지금은 셋이 대학  
 을 졸업하고 막내가 대학을 다니  
 고 있습니다..」

「아주 들떠한 4형제를 두셨는  
 데 혹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  
 는 아쉬움같은 것은 없는지요?」

「여자들 뿐인 간호학생들을 늘  
 대하다 보니 가끔 생각하게 되거  
 도 합니다.」

「선생님께선 원고를 많이 쓰시  
 는데 앞으로 출간에 대한 목표는  
 어떠한가요?」

「내외과간호학등 이미 낸 것도  
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」

선생님은 1966년 미주 조지아  
 주 애트리 대학원에서 간호교육  
 을 전공하시고 학원에서 20여년간  
 계속 후배양성에 힘써 오셨다.

「앞으로는 우리 회원의 편익을  
 위하고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간  
 호사업을 위해 학문적, 기술적,  
 지적 발전을 지행하려고 한다」는  
 한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.

선생님의 이같은 뜻에 어긋남이  
 없도록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발  
 땀땀 밝은 앞날의 기초를 굳혀야  
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

막달하게나마 좀더 대화를 제  
 속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강의  
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애 기자는  
 아쉬운 마음으로 종종히 일어섰  
 다.

<Lim>